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천주교 하와이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Of Hawaii

연중 제 5주일

발행 천주교 하와이 한인본당
발행인 김영근 야고보
편집 하와이 한인본당 편집부

주소 2949 Kahawai St. Honolulu, HI96822
이메일 kccmanoa@hotmail.com
홈페이지 <http://hi.dj catholic.or.kr>

2018년 2월 4일(나해)
제 1898 호



오늘의 미사

입당송

어서 와 하느님께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제1독서_욥기 7,1-4,6-7

화답송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 주신다.

제2독서_코린토 1서 9,16-19,22-2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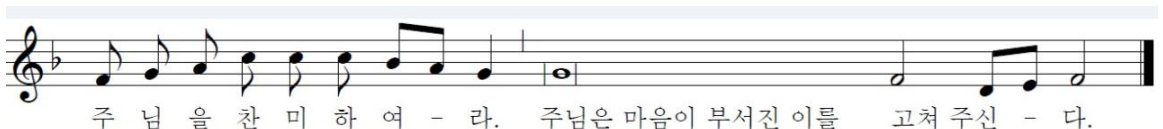
그리스도 우리의 병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

복음_마르코 1,29-39

영성체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화답송





질문을 합시다



김광호 요셉
연무주임

성서를 묵상하는 많은 방식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선호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성서의 등장 인물이 되어 그가 그 상황에 느꼈을 감정과 마음의 생각을 읽어보려고 하고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정과 상상 그리고 질문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은 좋은 대화로 이끌어가는 도구이며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그분과 함께 지금 여기에 현존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복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 제자들, 시몬의 장모, 군중들이다. 사건은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준 것이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마귀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으며 그들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셨다. 제자들과 군중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은 다음 고을로 자신의 일을 하려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 보면 '왜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을까?'하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이 질문은 병자는 죄를 지은 사람이며 그 죄의 사함을 받지 않으면 병에서 해방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단지 신학적 이유만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집과 가족으로부터 떨어졌고, 외면당했다. 그들의 고통을 알 수 없다. 짐작할 따름이다.

모든 병이 사라졌다고 해서 과연 그들은 하느님 나

라의 현존을 체험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병이 들지 않았을까? 그럼 의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하느님의 나라는 현존하지 못하는 것일까? 병과 죄를 연결시키지 않는 지금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왜 지금은 모든 사람이 그러한 치유의 상태를 경험하지 않는가?

쉽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질문들의 상황에 머물러 보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심이 병을 고치는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가정해 보자.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진정 하느님 나라의 현존은 다른 것이지 않을까? 이 질문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대답해 보면 어떨까? 자애, 불쌍히 여김은 동정과는 다르다. 또한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지니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심리학에서 인간은 공감이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입장이 있다. 그 이유는 각자의 경험이 자신의 세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공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세계 안에서 공감하는 것은 오류를 내포한 공감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알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온전한 공감 이전에 서로에 대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감의 일부를 통하여 그의 세계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결합의 중요한 지점을 만 들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명명한다면 하느님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느님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하여 그 피조물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하느님과 다른 피조물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사랑한 것을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바울이
(743)
유판식 토마스



2017년 저희 하와이 본당에 기명으로 봉헌하신 신자 분들께
헌금 내역서를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열거 한 분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자 합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김진희 사비나 (721-1055) 또는 사무실 (988-967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피	Lee, Song Hee
JAMES , M	김성옥
YI, Lynn	김영자
Pak, J	Eom, Soung
Kim, Grace K	Choy, Sylvia Hur
Kido, Jinni K	Yoshimura, Joy J
Monserez, Tae Suk	Wellbeing Organic World,LLC
Lattanzio, Kim Suk	Kang, Clara
Yi, Young Sang Pil	Nelly, James A
Choi, Tomas	Lee, Robert
Carell, Chung Ja	

성당에서 발송한 헌금 내역서 중에 이름, 주소 등
 수정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988-9678)이나
 김진희 사비나(721-1055)로 연락 바랍니다

【 공 지 사 항 】

■ 성당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변경 안내

일시 : 3월 1일부터
 전화번호 : (808) 888-6824
 팩스번호 : (808) 888-6194
 사제관 : (808) 367-0332

■ 사순시기중 미사의 창미사곡 변경 안내

- 자비송 - 325번
- 거룩하시도다 - 327번
- 하나님의 어린 양 - 328번

■ 예비자 선발 예식

일시 : 2월 18(주일) 오후 2시
 장소 : 성 데레사 준주교좌 성당
 집전 : 레리 실바 주교님
 대상 : 금년 부활절 세례 예정자, 대부분

■ 성지가지 회수 안내 (2월 11일까지)

2017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축성한
 성지가지는 성당 뒤 바구니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p>옥 치과</p> <p>일반치과, 신경치료, 응급치료 메디케어 제공 / 946-2785</p>	<p>동양관광여행사</p> <p>항공권도매/섬일주/이웃섬 관광/호텔예약 944-3949/info.orient1988@gmail.com</p>	<p>브라이언 오토 바디샵</p> <p>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흥 프란치스코 / 836-5887</p>	<p>김남훈(베드로)CPA</p> <p>회계감사, Book Keeping, 세금보고 947-2470</p>
<p>New York Life</p> <p>은퇴연금/학자금/재산증식/무료상담 차 그레고리오 / 226-3344</p>	<p>MYCOMP</p> <p>컴퓨터 수리 & 교육(그룹, 개인) 김효석(요셉) / 398-9695</p>	<p>최 니콜 부동산</p> <p>732-5004,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p>	<p>65세 이상 건강보험</p> <p>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203-7038</p>
<p>United Credit Education Service</p> <p>크레딧 교정, 복원 전문회사/무료상담 백승희(아나스타시아) / 931-9249</p>	<p>메리장 가정의학 클리닉</p> <p>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합니다. 예약전화 808-941-7799</p>	<p>아일랜드빈티지커피</p> <p>알라모아나/로얄하와이안 쇼핑센터 강호철 (바오로) / 941-9300</p>	<p>최현희(보나) 부동산</p> <p>부동산매매/상담 및 문의를 환영합니다 636-5217</p>

함께 나누고픈 좋은 글이나 후보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kccmanoa@hotmail.com 한인본당사무실(988-6047)

성경 통독 안내 (준비물: 새번역 성경)

시간 : 11시 5분 ~ 11시 25분

오늘의 본문: 창세기 27:30-30:43

통독 방법: 성경 본문을 펴시고 오디오 성경 속도에 맞춰 눈으로, 속으로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경 공부

마태오 복음서 하권 책이 필요하신 분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성지가지 회수 안내 (2월 11일까지)

2017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축성한 성지가지는 성당 뒤 바구니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설미사(2월 11일)의 미사 지향 접수 안내

신청 마감 : 2월 4일(일)

설 미사 차례 음식 도네이션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이인희 데레사 (782-2010)

몰로카이 방문 신청 안내

기간 : 4월 11일 (수)

담당자: 박경선 베드로 (391-2757)

※대전교구 라자로 주교님께서 사제단 피정 때문에 하와이를 방문(4월 3일 ~ 4월 13일)하십니다. 일정 중에 4월 11일 (수) 주교님, 신부님들과 함께 몰로카이를 방문하길 원하는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자리가 한정되었습니다. 현재 3 자석의 여유가 남아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2월 철야기도회 연기 안내

시간 : 2월 10일(토) 둘째 주

연락처: 성령 기도회장 김 안드레아 (497-6868)

구역협의회 모임 안내

시간 : 2월 첫째 주일 교중 미사 후

장소 : 강당회의실

와이키키 구역 모임 안내

시간 : 2월 둘째 주일 오후 4시 30분

장소 : 기아모쿠 참전용사관

가이무키 구역 모임 안내

시간 : 2월 둘째 주일 오후 4시

장소 : 교육관 독서실

지난 주(1월 27, 28일) 우리들의 정성(\$ 10,908)

주일헌금	교무금	2차 헌금
\$ 3,563	\$ 4,480	\$ 1,396

*헌 금 : 토요 \$ 606 아침 \$ 742

교중 \$ 1,915 청년 \$ 300

*교무금 : 토요 \$ 1,175 아침 \$ 0 교중 \$ 3,205

*2차 헌금 : 토요 \$ 223 아침 \$ 270 교중 \$ 903

*미사책 \$ 291

*성소후원금 \$ 100

*사회복지기금 \$ 50

*초봉헌 \$ 450

*성물판매 \$ 578

미사 시간 안내

마노아	•주일미사 : 오전 6:30, 11:30(교중 미사), 오후 3:00(청소년 미사)
	•평일미사 : 화요일 오후 7시, 수요일 오전 10시
	•성 시간 : 첫 화요일 7시 미사 중
솔렉	•주일미사 : 토요일 오후 7시 •평일

주임신부 : 김영근(야고보) [사제관 (808) 892-1480]

▪ 사 무 실 : 전화. (808) 988-9678 팩스. (808) 988-6047

이메일. kccmanoa@hotmail.com

예비자 교리 :

매주일 10시 강당 회의실

성경 공부

- 매 주 금요일 저녁 7시 성당

- 솔렉 / 매 주 목요일 저녁 7시 미사 후 강당(솔렉성당 지하)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기

나 임종환자 또는 망자 발생시는 연령회(회장 박춘경 데레사 224-3335)로 연락주십시오.